

#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1차 공동위 개최

- 디지털, 공급망, 핵심광물 등 신통상 규범을 반영한 FTA 개선 추진 -

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가 4.8(수) 화상으로 개최되었다.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이번 공동위에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(Alpana Roy)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.

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서,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협정이 상품·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, 디지털, 공급망, 핵심 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.

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-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.

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, 공동위원회 운영세칙, 협상 분과 구성,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.

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정책정책관은 “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,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, 디지털, 공급망, 핵심광물 등 AI, 전기차와 같은 미래 혁신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통상협정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도엽 (044-203-5750)
	통상역협정이행과	담당자	사무관	김민영 (044-203-5756)

## 1. 추진 경과

- 한-아세안 정상회의('22) 계기 우리측이 FTA 개선 의지 표명
  - \* “FTA에 디지털 협력도 포함해 업그레이드하겠음”(한-아세안 연대구상, '22.11)
- '22~'25.10월 아세안과 FTA 개선 공동연구\* 및 개선 분야 협의 진행
  - \* 공동연구 결과, 양측간 디지털·공급망·핵심광물 등 신통상규범 강화 필요 제언
-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('25.4~6), 공청회 개최(9.12)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·의결(10.14) 완료
- 한-아세안 정상회의 ('25.10) 계기,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

## 2. 협상 목표

◆ AI, 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는 디지털, 핵심광물, 공급망 등 신통상규범 중심 협상 역량 집중

- (디지털) 높은 수준의 디지털경제 규범 도입을 통해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·투자 기반(디지털 고속도로) 구축
- (핵심광물)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(희토류), 인니(니켈)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·투자 원활화 기반 구축
- (공급망) 공급망 교란 대응 협력,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
- (기타) 그린경제, 지재권, 비관세조치 등 나머지 규범 분야도 우리 기업 실익 관점에서 협상 추진